

##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나의 미래의 모습은 뭘까요?

Troy High School 11<sup>th</sup>Grade

유지아 (Jia Yu)

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부모님께서 모두 교회를 다니셔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예배와 여러 교회 프로그램들에 참석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믿음, 그리고 목사님과 선생님들께서 가르쳐주시는 성경말씀을 잘 듣고 큐티도 하는 오빠와는 달리 저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사람들이 사는 이 지구를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2024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아직까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주일마다 교회를 가기 때문에 저도 같이 가려고 노력하지만 예배에서 목사님들께서 해주시는 성경말씀을 듣다가도 집중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엄마께서는 엄마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셔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믿으셨지만 혹시 병이나 사고로 죽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생이 되고 일대일 성경공부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엄마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엄마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셨다고 하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고, 저도 곧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신다고 늘 말씀해 주셔서 저도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어릴적 초등학교 시절에는 돈을 아주 많이 벌어서 부모님도 호강시켜드리고 어릴적 나를 같이 키워주신 고모도 도와드리고 사회에 사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있었지만 현재 11학년으로서 대학지원을 앞두고 앞으로 무슨 전공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게 좋을지 부모님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앞으로의 저의 삶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있지만 아직 확실히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관해서는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NJROTC 활동을 4년째 해오고 있고 바이오 분야에도 관심이 많아 military doctor가 되어서 전쟁 중에 생긴 부상으로 힘들고 아파하는 병사들을 치료해주는 삶도 생각도 해 보았고, 동물병원 의사가 되어 제가 좋아하는 많은 동물들을 돌봐주고 싶다는 생각,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아버지를 위해 심장전문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 아니면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유명한 컨설팅회사에 취직해서 미국정부와 여러 기업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선교사가 되기 위해 모든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브라질 선교사로 떠났던 이모처럼 우선 컨설턴트로 일하다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도 의미가 있는 삶일지에 관한 생각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저는 부모님과 목사님, 교회 선생님들로부터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는 그분의 자녀라고 배웠습니다. 저의 부모님께서선 무엇보다 제가 하루하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제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몸과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학교공부로 많이 바쁘지만 틈틈이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면서 대학교 지원 때문에 갖게되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가진 소질과 흥미를 잘 발견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도록 늘 격려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분이 제가 태어날 때 주신 어떤 분야의 재능과 소질을 잘 찾아서 제가 즐겁게 일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거나 무엇을 구상해 손으로 만들어 내는 일을 좋아하고 식물과 곤충, 동물들을 키우는 것에 관심이 많아 어렸을 때부터 채소와 과일 등 식물의 씨앗을 받아서 키우기도 했고, 제가 원하는 달팽이를 사오기 위해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자전거를 타고 찾아 가서 달팽이들을 사다가 기르기도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동물에 관한 영상과 거북이와 같은 동물의 해부과정을 찾아보았던 것도 제가 동물에 관심이 있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식물이나 동물 이외에도 3D 프린터가 처음 나왔을 때는 다른 것을 제쳐두고 수개월간 3D 디자인과 프린팅에만 매달려 있었고 아직도 그런 일들이 정말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대학지원을 앞두고 있는 현재에선 특별히 어떤 전공을 해야할지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 막연히 어떻게든 잘 되겠지 하는 생각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공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엄마, 아빠께서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제 인생에 관한 모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해와 주셨고, 저도 부모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는대로 어서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어서 저의 인생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직접 여쭙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배운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엄마, 아빠께 더 공손히 대하고 평소에 공부도 잘 도와주고 저를 사랑해 주는 오빠에게도 조금 더 친절하게 말하고, 학교에서 저를 속상하게 했던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저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에도 제가 배운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직접 가르쳐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더욱 자세히,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